東洋學 第75輯(2019年 4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사고전서총목제요』 역류(易類)에 반영된 청초 역학관 고찰

-『제요』 편찬자의 포폄을 중심으로*

이 시 우**

국문초록

이 논문은『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역류(易類)에 실린 책에 대한 편찬자의 포폄(褒貶)과 코멘트[案語]의 내용을 토대로 편찬자의 역학관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을 바탕으로 청초(淸初) 역학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본다.

『사고전서총목제요』는『사고전서』에 실린 책들의 개요와 목차를 정리한 목록학 저작물로서,『사고전서』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이 안내서가 없었다면『사고전서』 편찬의 목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본론을 크게 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로 건륭제(乾隆帝) 때 문화정책의 총결산인『사고전서총목제요』의 편찬 배경을 청초의 학술변화 양상, 정치와 지식의 연계, 계고우문, 그리고 문화권력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검토한다.

즉『사고전서총목제요』의 편찬은 편찬자의 학문 추구와 건륭제의 문화권력 행사가 상호 교차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다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것을 청초의 문화적 정책과 배경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로 우리는 편찬자들이 이러한 문화정책과 배경 속에서『사고전서총목제요』의 역류를 편찬하고 평가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는지에 대해 소서(小序)와 포폄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초 역학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황제의 절대 권력에 의해 지식이 편집되는 왕조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편찬자들이 나름대로 절충(折衷)과 판단유보[闕疑]의 방식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학의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한 점을 밝혔다.

[주제어] 사고전서총목제요, 청초역학, 稽古右文, 문화권력, 담론, 포폄, 절충과 판단유보[闕疑]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제요』의 담론적 성격과 건륭제의 계고우문(稽古右文)
Ⅲ. 포폄을 통해 본 역류의 역학관
Ⅳ.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17S1A5B5A07063991)

** 대전대학교 교양대학 시간강사 / mokmanny@daum.net

Ⅰ.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재위기간 1736~1796) 시기 『사고전서』[1] 편찬사업이 펼쳐졌을 때 그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사고전서총목제요』[2] 경부(經部) 역류(易類)에 수록된 서적들의 해제에 반영된 편찬관의 포폄과 안어(案語)의 내용을 토대로 편찬관의 역학관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청초 학문적 경향과 역학관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건륭제의 어명으로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한 『사고전서』 편찬은 청대 당시까지 나온 책들을 망라하여 교감하고 필사한 후 각각의 책에 해제를 다는 방식으로 진행된 당시 최고의 도서편찬사업이다.

『사고전서』를 편찬 때 편찬관은 사고전서관에서 『사고전서』에 실린 모든 책을 경사자집(經史子集) 4부 44류의 분류체계에 따라 나누어 필사했다. 아울러 편찬 작업의 마무리 격인 『제요』를 만들었다. '제요'란 말 그대로 '요점을 제시'한 것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편찬관들은 『사고전서』에 실린 각각의 책의 긴요한 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초록집 또는 목록 해제집 정도에 해당하는 별도의 『제요』를 만들었다.[3]

『제요』에는 각 도서의 저자, 판본의 유래와 진위, 내용의 구성과 특징, 의의, 장단점 등이 집약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특히 각 도서의 의의와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부분에서 편찬관의 가치관과 역학관 나아가 정치·문화적 시각과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편찬관이 『제요』에서 각 도서의 서지사항과 관련한 사실적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역학관을 바탕으로 가치판단이 반영된 포폄의 말을 함께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한 총찬관 이하 경부 역류 『제요』의 내용을 기술하고 심의한 편찬관들 간에 학문·정치적 관점 차이가 존재하기에 청초 역학관을 단편적 시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벌인 송학파와 한학파 사이의 경쟁을 학문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치담론의 양상을 여러모로 살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흔히 유학의 시작과 끝을 '수기치인'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 말은 유학의 전유물이 아니고 중국의 모든 관리가 학자이면서 정치가라는 점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다.[4] 이렇게 볼 때 『제요』 편찬을 담당한 담론의 주체이자 생산자인 편찬관의 학문·정치적 관점을 토대로 청초의 역학관을 이해하는 방법은 유효해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편찬관의 안어와 포폄의 말을 통해 청초 역학관과 사유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類書(혹은 백과전서식 叢書)인 『사고전서』는 건륭 38년(1773)에 편찬을 시작하여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지금으로 치면 『사고전서』 편찬은 국가 주도의 초대형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사고전서』의 '사고'(또는 四部; 經史子集)의 분류체계의 기원과 특징, '全書'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해서는 신정근, 「『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유가 중심성의 강화」, 『동양철학』 35집, 한국동양철학회, 2011 참조. '四庫學'의 유래와 역사,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현황 등을 간략히 개괄하려면 신정근,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대동문화연구』 75, 대동문화연구원, 2011을 참조. 아울러 『사고전서』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한 훌륭한 입문서로는 켄트 가이(저), 양휘웅(역), 『사고전서』, 생각의 나무, 2009를 참조.

2) 본 논문에서 사용한 『사고전서총목제요』 저본과 쪽수는 하북인민출판사본이다. 紀昀 總纂, 『四庫全書總目提要』(全4冊), 河北人民出版社, 2000. 이하 『제요』로 약칭한다.

3) 켄트 가이, 위의 책, 182쪽 참조.

4) 켄트 가이, 위의 책, 130쪽 참조.

Ⅱ. 『제요』의 담론적 성격과 건륭제의 계고우문(稽古右文)

1. 『제요』의 담론적 성격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역사(歷史)가 되고, 그렇게 기록되고 기억된 역사에는 해석과 관점이 주입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해석과 관점은 지식과 권력을 선점한 자들이 짜놓은 정치담론에 의해 구성되거나 강화된다. 즉 특정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틀 지우고 담론을 구성하는 사고체계, 즉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다. 특정 시대의 역사와 해석, 지식과 권력 관계가 지닌 이러한 일반적인 담론의 성격은 '복고(復古)의 총화'인 『사고전서』의 안내서라고 볼 수 있는 『제요』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요』의 역학관을 이해하는 데 『사고전서』가 편찬될 당시의 담론의 성격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선행될 작업이다. 즉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복고'에 뿌리를 두고 '공정성'과 '실용성'의 기준을 강조하며 '재현'된 『사고전서』와 『제요』의 편찬은 애초부터 그것을 재현하는 주체인 건륭제의 정치적 입장과 문치제도가 맞물려 구성된 또 하나의 담론의 구성물이라는 면에서 과거 명나라 왕조가 『영락대전』을 편찬한 것의 변형일 뿐이다.

이러한 변형적 구성물인 『사고전서』는 4부 44류 각 부류에 책을 시대순에 따라 정리 필사하는 편제방식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각각의 책을 병렬적으로 다루고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조의 사상 검열(문자옥)로 인한 문화(文禍)와 문치 기반 문화(文化)의 지적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산물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건륭제의 문화정책과 그 산물인 『제요』는 양가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일부 역학 전공자들은 우주만물의 존재 원리를 담고 있는 『주역』의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론의 위상을 절대시하며 경험적 정치담론 구조에서 『제요』의 역류를 해석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주역』은 '경서'라는 지위와는 별개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텍스트이고, 또 역류 『제요』에 보이는 편찬관의 포폄은 삶의 여러 조건의 문맥과 연관되어 있기에 컨텍스트인 것이다. 이는 곧 『제요』의 포폄을 청대라고 하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맥락과 사고관원의 지적 경향을 점검하는 방법을 통해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건륭제의 문화정책

건륭제는 청나라 제6대 황제다. 그는 17세기 중반 제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가 정치・문화・경제적 초석을 놓고, 옹정제(雍正帝)가 그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것을 이어받아 청나라를 60년간 이끌었다. 강희・옹정・건륭 3대의 시기를 흔히 강건성세(康乾盛世)라 부르는데, 건륭제는 조부 강희제의 위업을 이어받아 정치・경제・군사・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국가를 이룩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격언에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5]는 말처럼 건륭제는 『사고전서』 편찬을 알리는

5) 『漢書』 권43 「陸賈傳」, "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乎."

성유(聖諭)의 일성을 "계고우문(稽古右文, 복고주의와 문치주의)"[6]으로 시작하며 문관제도에 의해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표방하고 복고의 문화정책으로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대의 역학 저작은 460여 종에 달하고,[7] 『제요』의 경부 · 역류에는 총 484부가 수록되어있다.[8] 『제요』의 내용은 일정한 체례를 갖는다. 저자의 생애, 도서의 내용 및 학술사상, 판본 고증, 권질의 분합 등에 대한 고증과 평가, 그리고 포폄, 안어 등의 말이 적혀있다. 이러한 말에 한학파 총찬관 기윤(紀昀, 1724~1805)과 육석웅(陸錫熊, 1734~1792), 그리고 대진(戴震, 1724~1777) 등의 견해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9] 따라서 『사고전서』 편찬시 청초의 역학관을 『제요』에 담긴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제요』 편찬시 형성된 건륭제의 문화권력과 편찬관들의 학문적 사고의 자율성 사이의 함수관계는 청조의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성공적으로 정치담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사고전서』의 담론 성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문과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목할 내용은 『사고전서』 편찬의 가장 큰 성과를 이데올로기적 안정의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건륭제는 자신이 의도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메시지를 『사고전서』에 수록될 책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옛 서적 중에 인간 본성의 학문과 치세의 방법을 천명하고 도덕풍습과 사상 정감과 관련이 있는 저작을 마땅히 먼저 찾아서 구입하라."[10] 이 말은 『사고전서』 편찬의 목적이 성현의 도를 발판삼아 도덕 본성을 계발하고 사회를 다스려 백성과 풍속을 교화하는 데 있음을 적시한다. 즉 『사고전서』 편찬의 일차 목적은 순수한 학문 진흥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느냐는 치세와 치인을 위한 정치적 효용과 실용에 있었다. 다음의 말은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현의 학문은 본질을 밝힘으로써 실용에 도달하는 것을 위주로 했으니, 실제의 일에서 본질과 실용을 드러낼 수 없는 모든 작품은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11]

---

6) 『제요』 卷首, 聖諭, 乾隆三十七年正月初四日奉上諭, 1쪽, "朕稽古右文, 聿資治理."

7) 廖名春(공저), 심경호(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571쪽.

8) 『제요』 권6, 경부6, 역류6, 185쪽, "원주 : 이상 「역류」는 158부 1,757권이고 「부록」은 8부 12권이다. 모두 문연각에 실려있다."; 『제요』 권10, 경부10, 역류존목4, 321쪽, "이상 「역류」 317부 2,400권〈원주 : 권수가 없는 49부 포함〉과 부록 1부 1권은 모두 「존목」에 덧붙여 수록했다." '존목'은 필사하지 않고 제목만 기록한 것이다.

9) 『총목제요』 작성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翰林院勘閱編輯四庫全書官員職名, 總纂官: 文淵閣直閣事兵部侍郎臣 紀昀; 文淵閣直閣事大理寺卿臣 陸錫熊; 太常寺少卿臣 孫士毅/纂修官: 文淵閣校理司經局洗馬臣 翁方綱; 翰林院編修臣 邵晉涵; 翰林院庶吉士 臣 戴震; 刑部郎中臣 姚鼐. 이중 요내와 옹방강은 송학을 지지하는 학자로서 요내는 『제요』 편찬과정에서 한학파의 주장에 반발하여 사직하고 고향에서 평생 한학을 비판하였고, 옹방강이 작성한 『제요』의 글은 최종 교정 과정에서 대부분 교체되었다. 기윤 · 대진 · 소진함 등은 한학파 학자들로서 특히 『제요』에 기윤의 견해가 대부분 포함되었는데, 이는 『제요』의 分纂官인 文淵閣校理原任洗馬 劉權之가 "황상께서는 나의 스승인 기 선생에게 『총목제요』의 해제들을 검토하여 모든 해제가 한 사람의 손으로 편집되도록 명령했다."라고 한 말이나, 또 歷任正總裁官 于敏中이 육석웅에게 편지로 "저는 해제작성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해제가 당신이나 기효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면 초고라고 불릴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劉權之, 「紀文達公遺集序」. 王蘭蔭, 「紀曉嵐先生年譜」, 95쪽(켄트 가이, 210쪽 재인용) 라고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0) 『제요』 卷首, 聖諭, 乾隆三十七年正月初四日奉上諭, 1쪽, "其曆代流傳舊書, 內有闡明性學治法, 關系世道人心者, 自當首先購覓." 켄트 가이, 앞의 책, 188쪽 참조.

이 같은 메시지는 『제요』의 주요한 내용인 포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실 포폄은 "성인만이 감히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12]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도덕 · 정치 · 종교적 카리스마를 지닌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편찬자들이 수집한 모든 책에 포폄할 자율적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권한을 건륭제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인데, 이 또한 정치의 실용성에 입각한 건륭제와 편찬관들 간의 인정투쟁의 결과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는 문화가 문화로서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재분배되고 재편됨으로써 문화의 권력화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청나라 문화를 지배하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사고전서』 편찬은 단순히 문화사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계고우문'에 가려진 강권통치가 그 면죄부를 얻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과거에도 통일 왕조가 세워지면 왕권의 초석을 다진 후에 『사고전서』 편찬과 같은 유사한 작업을 통해 혼란기에 소실되었던 문헌을 복원하는 등의 문화정책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사상을 조율하여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려 했다.[13]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청나라 지배체제에서 지배계급이었던 만주족은 『사고전서』 편찬을 통해 한족 문화와 이민족 문화를 가르는 높은 벽을 무너뜨리고 그 둘의 혼합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혼합화는 단순히 자신의 정통성을 과거 성인에게 갖다 붙이려는 시도와는 뭔가 다른 메커니즘을 갖는다. '복고'의 특징은 자신과 동일시할 무언가를 과거로부터 찾으려는 원시에 대한 사랑인 '호고(好古)'의 감성적 태도에 기반을 두는데, 건륭제의 이러한 '호고'의 감성적 태도는 '호학'과 맞물린 『사고전서』 편찬사업을 통해 창신(創新)의 문화정책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사고전서』의 복고와 창신

성격상 건륭제의 『사고전서』 편찬사업은 공자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공자 지식론의 슬로건인 온고지신으로 포섭되는 내용을 한 단어로 아우르면 '복고'다. 건륭제의 『사고전서』 편찬도 새로운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계고우문'의 복고라는 프레임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도를 짠다. 단지 공자와 차이가 있다면 공자라면 하지 않아도 될 것, 즉 만주족 청나라 왕조가 중화의 전통성을 잇는다는 구도를 우선 세워야 하는 통찰과 수고로움을 동시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고전서』의 복고 표방은 일개 이민족의 태생적 한계를 쇄신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화의 정신에서 찾으려는 자구노력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환으로 시작된 『사고전서』 편찬은 청조 문화의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중국역사로 새겨져 비교적 성공적인 지배자의 역사를 장식한다.

---

11) 『제요』 卷首, 凡例 제14칙, 46쪽, "聖賢之學, 主於明體而達用, 凡不可見諸實事者, 皆屬卮言."

12) William Theodore de Bary, *Sources of the Chinese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9, p.267(겐트 가이, 위의 책, 306쪽 재인용).

13) 신정근,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63쪽 참조.

이러한 복고의 정신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건륭 37년(1772)에 『사고전서』 편찬 사업의 개시를 알리는 성유(聖諭) 맨 처음에 '계고우문'이라는 매우 상징적 문장으로 새겨진다. 수성시대에 복고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고전서』 편찬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보수화하는 작업에 유효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가시적으로 청조는 먼 옛날을 거울로 삼는 문치를 표방하며 야만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반만주의를 누르고 만주족이 세운 정권을 정당화하며 안정된 이데올로기를 재조직할 수 있었다. 반면 이때 기용된 한족 엘리트 지식인들은 이민족에게 지배당하는 예민한 정서적 아픔과 화를 가슴에 묻은 채, 개인의 향수로만 남을지도 모르는 가까운 옛날의 멸망한 나라의 한족 문화를 반추하고 지식을 재생산하며 계속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자위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만주족과 피지배계급 한족 지식인의 이러한 동행을 동상이몽에 의한 '연속(복고)과 분절(창신)의 담론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14]

이민족 왕조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두 가지 전략적 이데올로기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만주족 엘리트들의 반명주의 고취고, 또 다른 하나는 한족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반만주의를 억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전서』에 저록된 책 중에 명나라 『영락대전』에서 내용을 추려서 만든 영락대전본이 512종(3.7%)를 차지할 만큼 적지않다.[15] 이는 전란과 화재로 명나라 때 출간된 책이 많이 소실되어 민간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전서』 편찬 과정에서는 명왕조보다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반명주의[16] 정치적 이념이 우선할 게 아니라 공정성 기반한 문화적 가치의 전승이라는 문화주의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 명실이 부합하는 '전서'여야 하기에 '명대'와 '명대의 서적'에 대해서만 소홀히 할 수도 없었기에 심리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도 작용했을 것이다.[17]

지식과 권력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만약 이 말이 어느 정도 역사성을 지닌 말이라면 청나라의 지식 기반은 태생적으로 한학을 존숭할 수밖에 없었다. 청조에 의하면 송, 원, 명대의 성리학 중심의 학문과 정치는 공리공담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조는 한 편으로 반명주의를 기조로 하며 명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고증적 해석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학을 정면교사로 삼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8] 여기서 우리는 청조가 이전 명나라의 가치체계를 부정하거나 분기하여 뛰어넘으려고 하는 권력 본능의 발휘를 감지할 수 있는데, 역류 『제요』는 바로 이러한 부정과 분기를 통한 복고와 창신의 변증적 성과물이다.

---

14) 청초 복잡한 양상으로 문화권력을 다투며 벌어진 '연속과 분절의 담론화 과정'에서 송학과 한학의 대립은 명분과 의리 중시의 송학을 비판하고 한학의 고증학적 방법을 높게 평가한 『제요』의 편찬으로 한학의 부흥을 일으킨다. 하지만 夏長朴에 따르면 애초에 건륭제가 건륭 38년(1773) 『사고전서』 편찬의 조서를 내렸을 때 그의 관심은 한학이 아니고 송학이었다고 한다. 夏長朴, 「乾隆皇帝與漢學之學」, 彭林 編, 『淸代經學與文化』, 北京大學出版社, 2006, 156~192쪽(夏長朴의 견해는 김동민의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편찬과 청초 학술사조의 변화 양상」, 『동양철학연구』 67, 동양철학연구회, 2011, 224쪽 각주 4) 재참조). 이러한 건륭제의 태도 변화와 분절의 이유를 자신의 학문적 통찰력과 선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 황제와 단일한 학술공동체 또는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격렬한 경쟁을 벌인 송학파와 한학파 사이에 형성된 복잡한 정치담론의 양상을 살피는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15) 李常慶, 『四庫全書出版硏究』, 中州古籍出版社, 2008, 19쪽 참조. 역류에는 영락대전본이 총22종 저록되었다.

16) 조장연,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部에 보이는 학파별 분류와 평가 : 儒家類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7, 동양철학연구회, 2011, 251쪽 참조.

17) 켄트 가이, 앞의 책, 187쪽.

18) 신정근, 「『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 - 유가 중심성의 강화」, 118~119쪽.

4. 역류 『제요』와 청대 역학의 분기

청대 역학이 송원명 역학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은 바로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요』 편찬의 기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신정근은 특히 『경부』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제요』가 정치적인 동기만이 아니라 학술적 문화적 동기에 의해서 추동되었다고 하며 『제요』 편찬의 기준을 공정성과 현실성(실용성)으로 규정하고 있다.[19] 하지만 이러한 그의 해석은 같은 논지에서 역으로 『제요』가 학문적 공정성과 문화적 실용성에 의해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고, 기준도 정치적 야망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에서 세워졌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요』에 한학과 송학의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이야기된다.[20] 하지만 역류 『제요』에서만큼은 이 말이 꼭 실제와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역과 송역이 서로 경쟁한 것이 사실이지만 역류에서는 그 양상이 언제나 갈등관계로 치달아 한쪽을 배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역류 『제요』의 특징은 생각의 방식은 달라도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말처럼[21] 당시 청초의 학문적 분위기, 즉 한역과 송역을 절충하려는 사상적 조류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편수관이 『제요』에서 동진경(董眞卿)의 『주역회통(周易會通)』을 평가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동진경은 여러 학자들의 역설이 비록 길은 다르지만 귀착점이 같다고 생각하여 여러 이론을 두루 수집하며 하나의 이론만을 위주로 하지 않고 힘써 상수파와 의리파의 두 이론에 대해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주희가 채택하지 않은 소식(蘇軾)·주진(朱震)·임률(林栗)의 주장도 함께 수록하였다."[22]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편수관은 동진경이 상수와 의리를 겸하여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한 노력을 칭찬하고 있다.[23] 하지만 편찬관은 동진경이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한학의 한역 해석 측면에서 객관적인 설명이나 고증 없이 경문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그가 경문의 내용을 바꾼 것은 [정현 등의] 선유들의 근엄한 뜻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애써 변명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공정한 비판을 가한다. 명나라 양사기(楊士奇)는 이 책을 두고 역학을 집대성했다고 칭찬하는 게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주의 학문이 여전히 존숭 되었던 명나라 영락제 때 호광(胡廣)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한 『주역전의대전』과 청나라 강희제 때 이광지(李光地)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한 『주역절중』의 탄생은 모두 동진경의 『주역회통』의 '회통', 즉 '절충'이라는 문제의식에 근원한다.[24] 『주역절중』은 정이와 주희의 의리에 중점을 둔 의리파 송

---

19) 신정근,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68쪽.
20) 신정근,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70쪽.
21) 『주역』 「계사전 하」, "천하는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만 가는 길을 달리하고, 통일된 사고를 지향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天下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
22) 『제요』 권4, 경부4, 역류4, 124쪽, "眞卿以爲諸家之易, 途雖殊而歸則同, 故兼搜博採, 不主一說, 務持象數· 義理二家之平, 即蘇軾· 朱震· 林栗之書爲朱子所不取者, 亦並録焉."
23)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공교롭게도 廖名春 등이 지은 『주역철학사』(심경호 역, 예문서원, 1995), 553~554쪽의 견해와 일치한다.
24) 潘雨廷, 『讀易提要』, 上海古籍出版社, 2003, 293쪽.

역의 학설로 한역을 아울러 취하고 여러 이설을 절충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청대 대표적 관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절중』은 역을 풀이하는 순서를 『주역전의대전』과 다르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주역절중』은 정이와 주희의 위상을 뒤집어 체례상 경전에 이어서 바로 주희의 『주역본의』를 두고 그 뒤에 정이의 『이천역전』을 두었다. 이는 『사고전서』 편찬시 범례의 "존비가 제 순서를 바로잡게 되고 시대의 선후가 뒤섞이지 않게 되었다."[25]는 기준에서 볼 때, 『이천역전』을 역류2에 저록하고 『주역본의』를 역류3에 저록한 취지와 어긋난다. 이를 두고 이광지가 역학에서 주희를 가장 존중했던 기본적 취향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해석 같다. 여기에는 그의 학문적 취향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이광지가 청초에 영향력 있는 정치가이자 관방의 정통 역학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정치적 입장에서 청조가 왕조의 정통성과 권력의지를 키우기 위해 진행한 반명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송역의 의리를 위주로 하며 한역의 상수 해석을 모두 수용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주희를 청조와 이광지가 높임으로써 『사고전서』 편찬의 핵심적 기준인 효용성과 『제요』의 절충적 가치를 얻는 실리는 크다. 한족의 문화 전통을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유구한 한족 문화의 연장선 위에 위치 짓고 주희의 문화권력을 그 위치로 끌어오는 것은 효과적이다. 즉 청조는 송원명 대의 의리역 주도의 학풍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스스로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차별성을 갖는다는 가시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또 문헌학과 실증, 고증학적 방법론을 통해 역을 연구하려는 흐름에서 문화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한역 상수 쪽으로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의리역 일변도의 학술 양상에서 벗어나 상수역을 겸비하는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학술·정치 담론을 주도할 수 있다.[26]

이는 결국 더 나아가 건륭제 때 부항(傅恒)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한 『주역술의』에서 한역과 송역을 함께 묶어 설명하며 경문 해석에서 의리의 내용과 한역의 호체설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변화를 가져왔다.[27] 결론적으로 『제요』 편찬자들이 대부분 한학을 높이는 박학가라서[28] 역류 『제요』에서는 다시 변하여 송역을 누르고 한역을 높였다[29]고 일반적으로 평가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한역의 주도권이 『제요』 포폄의 내용을 쓰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30] 왜냐하면 『제요』의 포폄은 기본적으로 실증적인 방법으로 공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절충'·'융화'·'화쟁'의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

25) 『제요』, 經部1, 易類1, 51쪽 謹案, "俾尊卑有序, 而時代不淆. 聖度謙沖, 酌中立憲, 實爲千古之大公." 이 말은 범례 第二則에도 나온다.

26) 명말청초의 漢易은 문헌학적인 고증의 방법을 漢代 경전의 훈고학적 고증의 방식을 좇는 점에서 고거역학 또는 박학역, 淸易이라고도 부른다. 廖名春(공저), 심경호(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572쪽.

27) 廖名春 공저, 위의 책, 613쪽.

28) 廖名春 공저, 위의 책, 590쪽.

29) 廖名春 공저, 위의 책, 699쪽.

30) 신정근은 이에 대해 한학이 『사고전서』 편찬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더라도 『제요』의 편찬이 衆說의 기여와 사심을 넘어서는 公理, 經義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한다. 신정근,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71쪽 참조.

Ⅲ. 포폄[31]을 통해 본 역류의 역학관

1. 경부 역류 소서(小序) 분석[32]

경사자집 4부 각부에 총서가 있는 것에 대응해서 44류 각류에는 소서가 있다.[33] 우리는 총서를 통해 각부의 내용을 대략 알 수 있고, 또 소서를 통해서 각류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편찬자가 소서에 미리 강조하여 언급한 내용은 분명히 각 『제요』를 작성하는 데 기준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우리는 역류 소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편찬관의 역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사상, 그리고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아울러 '범례'[34]란 『사고전서』 편찬시 필요한 도서선별과 『제요』 작성의 준거를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이에 먼저 역류 소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범례'와 '소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제요』에 나타난 '포폄'의 유형과 사례를 검토하자.

역류 소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주역』의 학문적 성격, 둘째는 『주역』의 특징, 셋째는 『주역』의 대표적인 학파, 넷째는 『주역』의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첫째는 잘 알려진 바처럼 역이 복서에서 기원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그것의 궁극적 목적이 "『역』이라는 책은 하늘의 도리를 미루어서 인간의 일을 밝히는 것"임을 천명한다. 이는 대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것이라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좌전』에 기재된 오래된 점의 용례를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태복(太卜)이 남긴 점법임을 강조하는 곳이 총 15번 보인다.[35] 여기서는 다만 고고학적 발견과 실증에 의해 『주역』이 상주시대 점을 치기 위한 '숫자괘'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만 특별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36]

이어서 시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한역이 상수역을 위주로 한 것은 『주역』의 본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요』 역류 소서의 총찬관인 기윤이 한역을 높이고 송역을 낮추려는 박학역(또는

---

31) 편찬자는 『제요』에서 그 책이 지닌 가치를 포폄한다. 필자가 보기에 '안어'의 형식은 편찬자가 독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기록한 주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포폄은 『제요』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공정성 편집 원칙하에서 본문 안에 개인의 학문적 입장과 정서를 얹어 가치평가를 내린 말이다. 『제요』에서 유일하게 개인적 판단이나 감정이 드러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작성자의 관점이나 감정이 지나치게 표출되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32) 張舜徽, 『四庫提要序講疏』, 雲南人民出版社, 2005, 6~9쪽 참조.

33) 『제요』 卷首, 범례 제10칙, 45쪽: 四部 첫머리에 각기 總序를 두어 분류의 原流와 正變을 대략 서술하여 강령으로 삼았다. 43류(필자주 : 44류의 오류다.)의 첫머리에도 각기 小序를 두어 분리와 병합된 예속관계의 조정변화를 상세히 기술하여 조목을 분명히 했다. 司馬朝軍은 역류 소서를 비롯한 경부 각류의 소서를 紀昀이 쓴 것 같다고 고증하고 있다. "내가 지난날 『사고전서』를 편찬하며 경부 시류의 소서를 지었다.", "내가 궁중의 祕書를 20여년 교정하면서 본 경전을 해석한 책들 중 『역』이 가장 많았고 또 가장 넘쳐났다."(紀昀, 『黎君易注序』, 『紀曉嵐文集』 第一冊, 155面(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 編纂考』, 武漢大學出版社, 2005, 각각 79, 80쪽 재인용).

34) 『제요』 卷首에는 聖諭, 表文, 職名 다음으로 凡例 총 '二十則'으로 실려 있다. 오늘날 '일러두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저록도서와 존목도서를 망라해 모든 수록도서에 대한 수록의 원칙, 체례를 비롯한 편찬과정의 대강을 밝히고 있다. 『제요』의 범례의 기원과 구성, 그리고 번역 등을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다룬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조영래,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3, 한국서지학회, 2012 참조.

35) 峻華, 『周易故事』, 華夏出版社, 2008 참조.

36) 왕전푸(저), 신정근 · 이시우(역), 『대역지미, 주역의 미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제1장 참조.

고거역)의 시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기윤은 한역이라고 마냥 추존할 수 없는 학술사적 경향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한역이 지나치게 음양재이, 괘기설 등으로 흘러 더 이상 인간의 일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역의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역학의 대표적 학파를 '양파육종'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파는 상수파와 의리파를 가리킨다. 육종은 고복종(古卜宗 또는 象數宗)·기상종(禨祥宗)·조화종(造化宗)(이상 세종은 상수파에 속함)·노장종(老莊宗)·유리종(儒理宗)·사사종(史事宗)(이상 세종은 의리파에 속함) 등을 가리킨다. "원래 육종은 온전한 말로 역류의 소서에 나오지 않지만 소개된『역경』의 편찬자들의 핵심 개념에다 '종' 자를 결합시켜서 만든 말이다."[37] 상수학 제1종은『좌전』의 점법을 주로 가리킨다. 상수학 제2종은 주로 경방, 초연수의 계통을 가리킨다. 상수학 제3종은 진단, 소옹 계열의 도서학을 가리킨다. 의리학 제1종은 왕필 역학을 가리킨다. 의리학 제2종은 호원, 정이 계통의 역학을 가리킨다. 의리학 제3종은 이광, 양만리 계통의 역학을 말한다. 양파육종은 역학사 발전의 맥락과 각 학파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역류 소서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주역』의 상수학적 해석을 중시하며, 의리론자들의 괘효사와 상사에 대한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해석도 상수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청초『사고전서』역류에 반영된 역학관은 상수와 의리역의 해석을 다 근거로 삼으면서도 상수의 입장에서 절충하는 경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2.『제요』역류의 포폄 사례

『제요』편찬자들은 포폄을 하며 어떤 기준으로 무슨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을까? 분명 청나라 이전에도 역학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평가방식이 존재했다. 하지만 청나라 때는 그러한 평가가 국가의 계획사업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청대 이전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 입장들을 나열하고 취사선택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고관원들은 만주족 출신이 아니라 한족이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청대 권력의 힘에 의해 한역을 존숭하려 했지만, 명나라 신하로서 오랜 기간 동안 명대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그동안 명대 문화에 길들여진 정서와 지식의 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그들이 포폄을 하는 데 아직은 가혹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

명나라 영락제 때『사서대전』,『오경대전』,『성리대전』등을 편찬하며 자신들이 멸망시킨 원나라의 문화를 지워야 했기에 주희의 주석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한당 이래의 고주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38] 한편 청조가 송학(송원명의 주희 중심 철학)보다 한학을 높인 이유는 명대의 복고주의가 원대를 건너 뛰어 송대의 학문경향을 높이 치는 쪽으로 흐른 것과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건륭제가 애초에 조서를 내려 공식적으로 사고전서를 편찬하도록 명했을 때는 그의 관심이 한학이 아니라 송학이었다. 그런데 정작『제요』를 편찬할 때는 한학을 표방한 편찬자들의

37) 신정근,「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77쪽.
38) 신정근,「『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유가 중심성의 강화」, 102쪽.

의견이 관철되어 송학을 비판하고 한학의 고증학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39] 유가 정치에서 최고 권력자에게 요구하는 미덕이 '포용'이라고 해도 건륭제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국가사업에서 송학을 더 높이 치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반대로 한학을 중심에 두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제요』 편찬시 최고 정치권력자인 건륭제가 최고 문화권력자인 기윤을 길들이려는 어떤 복안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필자는 그것이 한족 지식인들을 정적(靜的)인 고대 경전의 정리와 해석에 힘을 쏟게 함으로써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 계획이었다고 본다. 이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건륭제는 송학과 한학이 분파지어 서로 싸우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고전서』 편찬 시작부터 애초에 그 싹을 자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송학과 한학 사이의 힘의 균형은 건륭제가 중심을 옮겨 어느 한쪽이 우위를 선언해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임이었다.

건륭제는 유학을 존숭했고 유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실력으로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건륭제는 여전히 한족 엘리트 지식인에 비해서는 실력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건륭제는 권력을 지적, 학문적 실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략적 전향과 선언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건륭제는 제요 편찬자들 앞에서 한학 담론 주체로서 한학의 손을 들어주는 극적인 장치의 결합을 통해서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건륭제가 제요 편찬자들에게 보인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권력만 얻은 효과만 본 게 아닌 것 같다. 건륭제는 자기의 취약한 부분인 이민족의 문화적 열등감을 편찬자와의 연대를 통해 보충함으로써 자기 혁신을 이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지닐 수 있었다. 또 자신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공격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더불어 보았다. 또 덩달아 백성의 지지와 우호적인 평판을 얻을 수 있었다. 유가 정치에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권력의 정당성을 판가름 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평판은 건륭제의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을 실력으로 옮길 수 있는 초석이었던 것이다.[40]

역류 편찬자의 학문적 입장과 실천적 의도는 『제요』의 짧은 글 중 포폄의 말에 압축되어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포폄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기윤은 총찬관으로서 『사고전서』 편찬사업 전체를 주관하며 안어(案語)를 쓰고, 『제요』의 모든 내용을 검열한 사람이다. 『제요』를 썼던 편찬자들도 통치자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포폄을 하며 시비의 표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시대의 조건을 반영한 담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면 편찬자들이 포폄을 하며 시비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제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41] 편찬자들은 『제요』를 작성하고 역학사를 기술하며 고증에 의해 포폄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42] 여기서는 논의를 공정성과 실용성, 그리고

39) 夏長朴, 앞의 책, 156~192쪽. 본 논문의 각주14) 참조.

40)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신정근이 "만주족 출신의 정치 지배자가 아니라 한족과 만주족을 아울러서 문화 전통을 수호하는 거룩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건륭제는 민족(인종)적 색채를 벗어나 만인의 제왕으로 변신하는 요·순 등으로 이어지는 성왕의 계보에 들게 되는 것이다."(신정근,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70쪽)라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신정근은 건륭제의 『사고전서』 편찬의 의지를 문화 수호(계고우문, 학술의 자율성)라는 내적 측면에 방점을 두었는데, 필자는 외적측면(소극적·부정적 의미에서의 사상탄압, 적극적·긍정적 의미에서의 권력의지 고양) 중 권력 의지의 고양에 초점을 둔다.

41) 이러한 문제의식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정근이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나타난 학술과 정치와 관련양상」에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절충주의와 궐의 자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1) 포폄의 기준 : 절충주의

편찬관원들은 『제요』를 쓰기 위해 마주한 텍스트 앞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했을 것이다. 물론 이때 가장 큰 고민은 개인의 감정과 신분, 문호의 당파성, 정치적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떻게 포폄의 '객관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바로 건륭제와 편찬자, 한학파와 송학파의 견해와 입장을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합의를 거쳐 체례를 정하면 된다.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준해서 포폄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요』속 포폄은 고정된 체례나 정형적 용례를 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폄의 타당성을 가늠하기가 비교적 쉽다. 여기서 포폄의 기준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타당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면 포폄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까? 그 근거를 성훈과 범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제요』의 「범례」 제14조를 보자.

> "성현의 학문은 본질을 밝힘으로써 실용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의 일에서 본질과 실용을 드러낼 수 없는 모든 작품은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 유생들의 책들은 고론에 힘을 쏟고, 음양태극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장황하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말들은 인사에 절실하지 않다."[43]

이 말에 근거하면 『사고전서』 편찬의 목적이 실용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실용성이 『제요』의 포폄의 타당성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작동했을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실례로 황종희(黃宗羲, 1610~1695)의 『역학상수론』에 대한 『제요』의 포폄을 보자.

> 그의 논리는 모두 근거가 있으니, 황종희는 상수 연구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과거 象과 數를 다루었던 각종 이론들에 대한] 전모를 꿰뚫어 깨달았고, 그 병폐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았다. [그의 상수론]은 한갓 의리에 근거해서 공허한 말만 늘어놓고 역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들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44]

아울러 『제요』에서는 실용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강조한다.[45] 이것은 범례 제16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경남중(耿南仲, ? ~1129)의 역설 [『주역신강의(周易新講義)』]과 오견(吳幵)의 시평(詩評)은 책의 장점은 언급하고 인물됨은 논하지 않았다."[46]라고 말했다. 『주역신강의』의 『제요』에 적힌 바에 따르면, 경남

42) 자세한 것은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 硏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4, 403~433쪽 참조. 단문에 의한 고증, 기인한 말에 의한 고증, 위조된 학설, 억측, 억단에 의한 고증, 소설가류의 말에 의한 고증, 문호를 앞세우는 말에 의한 고증, 恩怨의 말에 의한 고증, 傳聞) 의한 고증, 출전을 밝히지 않은 고증, 잔결본 및 잘못된 판본에 의한 고증 등은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것으로 봤다.

43) 『제요』 권수, 범례 제14칙, 46쪽.

44) 『제요』 권6, 경부6, 역류6, 152쪽.

45) 『제요』의 평가기준 중 특히 '평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신정근,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 67~72쪽 참조.

중은 오견과 더불어 전쟁과 화의를 토론하며 죽음이 두려워 금나라에게 땅을 떼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남중은 국가에 재앙을 미치게 한 자이다. 하지만 편찬자는 그의 사람됨과는 별개로 책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폄한다. "책이 대체로 상에 근거해서 이치를 설명하며 일에 따라서 경계할 내용을 제시했고, 또 종종 실제의 일에 절실한 도움이 되었다. 고원하고 공허한 말을 하고, 상수학에서 기수와 우수를 미루어 연역하며 일월의 운행을 『역』의 근본을 삼는 것보다는 나으므로 장점을 가려 취하는 것이 옳다."[47] 이러한 『제요』의 포폄을 범례 제16조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을 알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의 지닌 의미를 취하였다."[48]고 평가했다.

이러한 포폄을 통해서 우리는 『제요』 편찬자들이 대부분 한학파 고거역학자로서 의리역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역학관과 관련하여 사고관원은 역학사의 발전을 [상수와 의리를 추구하는] 두 학파의 여섯 종파는 이미 서로 공격하고 논박하는 상황[49]으로 규정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포폄을 하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사고관원이 의리역과 상수역의 학문적 성취를 학문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한 노력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 유목(劉牧, 1011~1064)의 '『역수구은도(易數鉤隱圖)』 3권'을 지금 『도장목록(道藏目錄)』을 살펴보면 실제로 『동진부(洞眞部)·영도류(靈圖類)·운자호(雲字號)』에 실려 있으니, 이는 곧 도서의 학설이 도가에서 나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지금 『사고전서』에 수록하여 보존하여 둠으로써 색다른 이론을 폭넓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50]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짚을 수 있다. 첫째 도서역의 기원을 유가가 아닌 도가에 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도서역을 아울러 봄으로써 역학의 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편찬자들이 『제요』 작성시 시대 이념이나 정치적 힘에 구애받지 않고 주체적인 지적 사유의 활동 속에서 서적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려 했고, 자율적인 학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제요』을 작성할 때 포폄에 항상 일관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당시 제요를 편찬할 때 청대의 권력자들은 『제요』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또 권력의 자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지식은 없다. 지식은 당시의 사회적 조건과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본래 점치는 법을 다루는 점법과 그 내용을 담은 점서에 의한 지적 활동을 술수학으로도 부른다. 술수가 학문으로서 인정된 것은 『한서』 「예문지」가 그것을 술수학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을 술수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러한 상식은 『사고전서』

46) 『제요』 卷首, 범례 제16칙, 47쪽.
47) 『제요』 권2, 경부2, 역류2, 69쪽.
48) 『제요』 卷首, 범례 제16칙, 47쪽.
49) 『제요』 권1, 역류1, 序: 此兩派六宗, 已互相攻駁.
50) 『제요』 경부, 역류2, '『易數鉤隱圖』 三卷, 附『遺論九事』 一卷', 61쪽.

가 편찬될 당시부터 이미 부정되었다.

실례로 『제요』에서 왕필에 대한 포폄을 보자. 『제요』에서는 왕필이 『주역』 해석에서 상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역학과 술수를 구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51] 즉 청대의 『제요』에서는 역류와 술수류를 구분하여 역은 천도와 인륜, 그리고 경세치용을 밝히는 학문으로 분류한 반면, 술수는 백성을 미혹시키는 미신이라 하여 배척되었다.[52] 그런데 예를 들어 모기령(毛奇齡, 1623~1716)의 『역소첩』에 대한 『제요』를 보면 "지금 이 책을 살펴보면, 이전 사람들이 훈고한 것을 증거로 인용하여 근래의 『역』 해설의 잘못을 바로잡았는데, 왕필·진단 두 학파에 대한 공격에 더욱 주력하였다. … 명나라 이후에 한유(漢儒)들의 학문을 거듭 밝히며 학자들로 하여금 공리공담으로 경전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 점은 실로 모기령이 그 앞길을 열었다."[53]라고 포폄했다. 이 또한 『제요』가 도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조망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용적 측면에서 절충하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문호에 대한 포폄

『제요』는 문호 간에 붕당을 맺어 싸우는 것을 혐오했다. 건륭제가 봤을 때 정치 안정을 이뤄 사회를 통합하는 데 붕당은 걸림돌이었고, 당시 문호간의 다툼은 학문적 논쟁보다는 이전투구였던 것이다. 건륭제는 자유로운 논쟁이 학문적 발전을 이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건륭제의 복심은 그대로 『제요』에 반영되어 문호를 앞세우는 견해를 반대한다.[54] 이는 특히 문호 간의 싸움을 주도한 송학 비판에 집중되었다.[55] 우리는 『제요』가 문호의 문화권력에 기대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잘못을 배격하고, 오히려 책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절충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는 원나라 조채(趙采)[56]의 『주역정주전의절충(周易程朱傳義折衷)』의 『제요』에서 "이 책은 비록 송학을 종주로 삼았지만, 상수의 호변(互變)까지도 아울러 다루며 또한 옛 한대 상수의 뜻을 상당히 보존했으니, 한 선생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았다."[57]라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

51) 『제요』, 경부1, 역류1, 55쪽, "弼全廢象數, 又變本加厲耳. 平心而論, 闡明義理, 使『易』不雜於術數者, 弼與康伯深爲有功. 祖尙虛無, 使『易』竟入於老莊者, 弼與康伯亦不能無過. 瑕瑜不掩, 是其定評. 諸儒偏好偏惡, 皆門戶之見, 不足據也"

52) 여기서 말하는 술수는 좁게는 『사고전서』 자부 술수류에 저록된 수학, 점후, 상택, 점복, 명리서, 음양오행의 지식을, 넓게는 음양재이설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한역의 술수까지 포괄한다.

53) 『제요』 권6, 경부6, 역류6, 156쪽, 『易小帖』.

54) 편찬자는 "유학자들의 문제는 학파를 나누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제요』 권94, 자부4, 유가류4, 案語, 2416쪽)라고 기록하고 있다.

55) 『제요』 권수, 범례 제15칙, 46쪽: 한당시기 유가는 공손히 스승의 학설을 지켰을 뿐이다. 그런데 남송에서부터 명대에 이르러서는 무릇 '經說'(경학가), '講學'(강학가)과 '論文'(문학가)는 모두 각자의 문호의 내세웠다. 대체로 몇몇 사람이 주동하였고 학문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들이 우쭐대며 그것을 조장했다. 붕당의 무리는 吳越사이의 긴 애증의 세월처럼 후대로 갈수록 점차 사이가 멀어졌고, 또 스승의 본래 종지도 상실하여 전하지 못했다. 원수 간의 골이 깊어 싸움이 끊이지 않았으니, 명분은 시비를 논쟁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승패를 위한 권력다툼이었다. 이로 인해 민심과 世道가 피폐해지는 데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56) 趙采는 원나라 潼川 사람이다. 자는 德亮이고 호는 隆齋이다. 조채 역학의 특징은 정이의 의리와 주희의 상수를 겸하여 종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당나라 李鼎祚의 『周易集解』을 연구였기 때문에 상수와 의리의 내용을 겸비할 수 있었다. 潘雨廷, 『讀易提要』, 上海古籍出版社, 2003, 294쪽 참조.

57) 『제요』 권4, 경부4, 역류 4, 115쪽.

이렇게 문호간의 다툼은 서로를 원수 짓게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론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조정에서 사심을 갖고 서로 배격하는 일은 국론의 분열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기에 배격되었다.

(3) 판단유보-궐의[58]

편찬관들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관점에 따라 책의 내용을 해석하고 포폄을 하고 싶겠지만 힘과 연계된 담론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강자가 내는 화음에 자신의 의견을 맞춰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편찬자들에게는 사상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궐의'의 태도가 중시되었다. 역류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자하역전』에서는 '궐의'의 태도가 『제요』 포폄의 중요한 기준임을 본문과 안어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다.

> 내부장본 『자하역전』도 거짓으로 자하의 이름에 가탁한 위서이므로 자하의 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호[59]의 책도 아니다. 그러나 위서라도 세상에 전해진 지가 오래 되었으니, 잠시[姑] 저록함으로써 일가를 갖추어 두었다고 하겠다.
>
> 안어 : 다른 사람의 이름에 가탁해 지은 책은 그 책을 위조한 사람을 아는 경우도 있고, 위조한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책을 일일이 그 책이 지어진 정확한 시대에 배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서』「예문지」에서는 그 책이 가탁한 인물의 시대를 그대로 따라서 책의 순서를 정했다. 지금도 그러한 체례를 따라서 책을 배치하였다.[60]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저록서목과 존목서목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도서의 진위 여부에 의한 판별이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존 가치가 있는 도서라면 위서라도 저록하는 실용성과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점이다.[61] 특히 『자하역전』은 '자하'라는 인물이 유학사에서나 역학사 계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위 인용문에 드러난 '잠시' 또는 '임시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姑)'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요』의 포폄, 평어의 말에는 '고'자가 특히 많이 쓰인다. 이 단어는 편찬자들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에 입각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궐의'의 자세를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징어이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62]라고 했는데, 편찬자들은 공자가 견지한 앎에 대한 태도를 포폄의 원칙으로서 비교적 실천으로 잘 옮겼다. 고증할

---

58) 『논어』「위정」, "多聞闕疑, 愼言其餘".
59) 『제요』 권1, 경부1, 역류1, 『자하역전』, 51쪽: 조열지(晁說之, 1059~1129)의 『傳易堂記』에서는 또 "지금 『자하전』이라고 불리는 책은 당나라 장호(張弧)의 『역』이다."고 하였다.
60) 『제요』 권1, 경부1, 역류1, 『자하역전』, 51~52쪽.
61) 신정근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편찬자들의 태도에 대해 "『사고전서』 편찬관은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단일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서적의 수록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신정근, 「『사고전서』는 실제로 '전서'인가?」, 113쪽)라고 규정했다.
62) 『논어』「위정」,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수 없음, 즉 자신의 '무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듯한 '부지(不知)', '불상(不詳)' 등의 표현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말하는 솔직함을 보인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속물형 인간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솔직해야만 모르면서 아는 척 실속 없는 말만 써놓은 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포폄의 기준을 정하는 건륭제 및 기윤과 같은 상부 최종 검열자가 학문의 엄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성훈과 범례에서 언급된 부분이기도 한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편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금기였다.

Ⅳ. 나가는 말

이상으로 역류(易類)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포폄과 안어(案語)의 내용을 토대로 편수관의 역학관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청초 학문적 경향과 역학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요』의 역학관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사고전서』가 편찬될 당시의 담론의 성격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건륭제는 "계고우문"을 표방하며 호학과 호고의 정서로 복고주의와 문치주의를 가치로 청조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한족 유교문화의 창조적인 힘을 활용하기 위한 도화선으로 『사고전서』 편찬을 학문,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로써 보건대 중국의 모든 관리가 수기치인의 이념을 신봉한 학자이면서 정치가임을 고려할 때 실제 『사고전서』와 『제요』의 편찬은 건륭제뿐 아니라 편찬관을 비롯한 모든 중국의 지식인과 구성원들이 신봉하는 '수기치인'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충실했고, 특히 '치인'의 정치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 더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다. 건륭제는 만주족의 칸만이 아니라 한족은 물론이고 여러 이민족을 모두 아우르는 황제로 자처했다. 이방인이자 만주족 소수민족 출신인 건륭제는 한족과 비한족, 북방 이민족 등을 망라하여 역사상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고 경제·문화적 번영과 더불어 서양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각기 다른 사회 풍조에 직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만주족 통치자는 힘으로 다스리는 전통적인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고전서』 편찬을 통해 호학·도덕적 성군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했고, 한족 신하들은 학자적 양심으로 만주족 통치자들이 벌인 검열의 민감성을 잘 이용하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학문권력의 원천이 되는 문화담론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청조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63]

한편, 이는 사고관원의 포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물음과 연관된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사고관원들이 포폄시 궐의(闕疑)의 방식을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괄호를 쳐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명나라 유신(遺臣) 편찬관들의 포폄은 만주족이 세운 청조 역사의 필연의 자장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필연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편찬관들이 학문적 자율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진동의 계기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63) 켄트 가이, 앞의 책, 328~330쪽 참조.

『사고전서』 편찬과 더불어 한학 존숭의 학풍으로 일변함에 따라서 전체 『제요』의 포폄의 말 중에는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한 책과 사람에 대해 부적절한 논평과 감정적 비난을 함으로써 비판도 받는다. 하지만 역류 『제요』의 포폄의 말을 분석해 보면, 송학파 요내가 송역의 경전해석과 의리해석이 갖는 장점을 한학파가 전혀 고려치 않고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폐단을 비판한 것과 같은 그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당시 청초의 학문적 분위기가 한역을 높인다고 해도 한역과 송역을 절충하려는 사상적 조류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제요』에서 동진경의 『주역회통』를 포폄한 예 등을 통해 고찰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학의 존숭과 송학의 경시라는 한계 속에서도 사고관원들이 지식인으로서 학문적 긴장감을 잃지 않고 역학의 진실을 해석하고 전하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기 오랜 역사 기간의 학문적 훈련을 통해 형성된 송학과 한학은 청초 『제요』 편찬과 더불어 문화, 정치 권력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며 지식담론과 문화권력을 창출했고, 그 결과 한학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실증과 고증을 중시하는 한학파가 주도하는 형세 속에서 『사고전서』가 편찬되지만 가장 핵심적 기준인 공정성과 실용성이 역류 『제요』의 해석과 포폄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편찬자들은 건륭제의 통치 권력으로부터 학문적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긴장을 견디며 역학사에서 전개된 다양한 의견들의 차이점을 따져보고 자신의 관점으로 포폄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글에 대해서는 궐의하는 자세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류 『제요』의 포폄을 통해 살펴본 청초 역학 담론의 방향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문헌 해석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청조가 순수 학문 진흥을 위한 목적보다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주도한 도서목록 사업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유교의 시녀 혹은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고증학적으로 분석하는 청대의 생산적인 학문 풍토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역류 『제요』를 읽어보면 당시 건륭제와 편찬자들, 한역과 송역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이 “한결같이 역학의 진리를 탐구하며 다른 방법론을 택한[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계사하 5」) 화쟁이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紀昀 總纂,『四庫全書總目提要』(全4冊), 河北人民出版社, 2000.
四庫全書研究所整理,『欽定四庫全書總目』(全2冊), 中華書局, 1997.
余嘉錫,『四庫提要辨證』, 雲南人民出版社, 2004년 1판, 2006년 2차 인쇄.
李裕民,『四庫提要訂誤』(增訂本), 中華書局, 2005.
司馬朝軍,『『四庫全書總目』編纂考』, 武漢大學出版社, 2005.
司馬朝軍,『『四庫全書總目』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4.
李常慶,『四庫全書出版研究』, 中州古籍出版社, 2008.
張舜徽,『四庫提要序講疏』, 雲南人民出版社, 2005.
潘雨廷,『讀易提要』, 上海古籍出版社, 2003.
廖名春(공저), 심경호(역),『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黃壽祺,『易學群書評議』,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8.
筧文生, 野村點子,『四庫提要北宋五十家研究』, 汲古書院, 2001.
송인창,『천명과 유교적 인간학』, 심산, 2011.
염정삼, 김정현, 김광일, 당윤희, 문준혜 저,『문헌과 주석』, 소명출판, 2013.
버트런드 러셀(저), 안정효(역),『권력』, 열린책들, 2003.
앤 팔루던(저), 이동진(역),『중국황제』, 갑인공방, 2004.
켄트 가이(저), 양휘웅(역),『사고전서』, 생각의 나무, 2009.
왕전푸(저), 신정근・이시우(역),『대역지미, 주역의 미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李中生(저), 임채우(역),『언어의 금기로 읽는 중국문화』, 동과서, 1999.
천쓰이(저), 김동민(역),『동양 고전과 역사, 비판적 독법』, 글항아리, 2014.
夏長朴,「乾隆皇帝與漢學之學」, 彭林 編,『淸代經學與文化』, 北京大學出版社, 2006.
데라다 다카노부(저), 서인범 외(역),『중국의 역사-대명제국』, 혜안, 2006.
김동민,「『四庫全書總目提要』의 편찬과 청초 학술사조의 변화 양상」,『동양철학연구』67권, 동양철학연구회, 2011.
신정근,「『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유가 중심성의 강화」,『동양철학』35집, 한국동양철학회, 2011.
_____,「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사고전서총목제요』의 특징」,『대동문화연구』75집, 대동문화연구원, 2011.
조영래,「『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서지학연구』53집, 한국서지학회, 2012.
조장연,「『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部에 보이는 학파별 분류와 평가 : 儒家類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67집, 동양철학연구회, 2011.

한미경,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3집, 2012.

* 이 논문은 2019년 2월 22일에 투고되어,
2019년 3월 2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4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4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Trend Analysis on study on *I Ching* in early Qing Based on Catalogues of *I Ching of Siku quanshu zongmu jiwei*

- focusing on a compiler of a jiwei of criticism -

Lee, Seewoo*

This study looks at the compiler's viewpoint of study on *I Ching* based on the compiler's assessment and comment on the book published in Catalogues of *I Ching* of *Siku quanshu zongmu jiwei*. Furthermore, based on this, we examine closely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y of early Qing's study on *I Ching*.

Siku quanshu zongmu jiwei is a manual of *Siku quanshu*. It keeps summaries and contents of the books in *Siku Jinshu* in order. So without this manual the purpose of *Siku quanshu* compilation cannot be achieved would fail to work.

This research is conducted in two main point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ilation background of the *Siku quanshu zongmu jiwei*, which is the total settlement of cultural policy in the Qian-long Emperor, in the light of the academic change pattern of early Qing, the link between politics and knowledge, jiguyouwen, and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power.

In other words, we look through the cultural policies and backgrounds of Early Qing that the compilation of *Siku quanshu zongmu jiwei* is a result of the compiler's academic pursuit will and the Qian-long emperor's cultural power being cross-crossed and influenced.

Second, we analyze the compliers through the examples of assessments and a short preface of what standards they have carried out in compiling and evaluating catalogs of *I Ching* of *Siku quanshu zongmu jiwei* under these cultural policies and backgrounds. Through this, we have

* Instructor, 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Daejeon University

ma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on *I Ching* in early Qing, and revealed that the compliers tried to convey the truth of study on *I Ching* while maintaining objectivity through the method of compromise and epoche(judgment suspension) even under the limitations of the times when knowledge is compiled by the power of king.

[Key Words] *Siku quanshu zongmu jiwei,* early Qing's study on *I Ching,* jiguyouwen[稽古右文], cultural power, discourse, compiler's assessment, the method of compromise and epoche[闕疑]